

고혈압의 병력이 인지되지 않은 좌심실 비대 환자의

24시간 혈압 monitoring 소견

부산대학교병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임종훈*, 오현명, 박유인, 박용현, 이현국, 배우현, 홍택중, 신영우

목적 : 좌심실 비대는 본태성 고혈압의 표적 장기 손상의 한 양상으로 고혈압의 병력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 또는 하루중 일시적인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도 관찰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에 저자들은 심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비대 소견을 보이면서 고혈압의 병력이 확실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좌심실 비대와 24시간 혈압 monitoring상의 혈압의 양상과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일상의 심초음파 검사에서 좌심비대 소견을 보이면서 과거력상 고혈압이 명확하지 않고 가족력이나 병력상 심비대를 일으킬 다른 원인이 없고, 내원시 2회 측정된 혈압의 평균치가 140/90mmHg이하인 15명을 대상으로 DEL MAR pressurometer로 24시간 혈압 monitoring을 실시하였다.

결과 : 24시간 평균 혈압 측정 결과 2예에서 수면시와 활동시 고혈압(JNC ambulatory BP criteria)이 동시에 존재하였으며, 또다른 1예에서는 수면시 고혈압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24시간동안 최고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의 경우 6예에서 경도, 8예에서 중등도, 1예에서 심한 정도의 혈압 상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예에는 수면시의 평균 혈압이 활동시의 평균 혈압에 비해 유의하게(10~20%이상) 낮게 나타났다.

결론 : 본태성 고혈압의 병력이 불확실한 환자에서 심비대는 비록 내원시의 수시 혈압의 평균치(casual BP)가 높지 않더라도 24시간 혈압 monitoring상에서 평균 혈압이나 최고의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의 상승과 흔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외래에서 측정된 수시혈압은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법에 비해 좌심실 비대와 같은 표적 장기 손상과 고혈압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때로 제한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산 꿀(석청) 복용후 발생한 동기능 부전에 의한 실신 2예

경희의대 내과 송민수*, 조정휘, 강홍선, 김건삼, 송정성, 배종화

서론 약물에 의한 부정맥은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으나 독소에 의한 예는 드물다. 꿀에 의한 서맥 및 저혈압, 실신의 발생이 국외에서 몇례가 보고된 바 있는데, 진달래나 철쭉에서 추출되는 andromedotoxin이나 grayanotoxin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들 독소는 소듐 통로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 국내에서 꿀에 함유된 독소에 의한 부정맥이 보고된 바 없는데, 본 저자들은 정력제 목적으로 태국산 및 브라질산 꿀을 음용후 발생한 동기능부전에 의한 실신 2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 51세 남자가 네팔라 브라질산 꿀을 탄 차를 마시고 10분후 발생한 의식소실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고혈압 및 당뇨병의 병력이 있었으나 부정맥, 전해질이상 및 신경학적 이상의 병력은 없었다. 내원당시 혈압은 측정할 수 없었고 심전도 검사상 접합부이탈동조율로서 분당 36회이었다. 아트로핀 0.25 mg 정주 후 분당 58회의 동조율로 바뀌었고, 입원후 심전도 추적검사상 정상소견이었다. 심초음파 검사, 심관류스캔 검사상 정상이었다. 내원 6일째 퇴원하였다.

(증례 2) 61세 남자가 네팔산 꿀을 탄 차를 마시고 20분후 발생한 실신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특이소견 없었다. 내원당시 혈압은 50/30 mmHg이었고, 심전도 검사상 접합부이탈동조율로서 분당 32회이었다. 아트로핀 0.5 mg 정주 후 분당 94회의 동조율로 바뀌었고, 입원후 심전도 추적검사상 정상소견이었다. 심초음파 검사, 홀터검사상 정상이었다. 내원 3일째 퇴원하였다.

결론 외국산 꿀이 석청이란 이름으로 정력제 등으로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데 이상과 같은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성분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치와 함께 복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